

안철수 귀국 임박 지역 정치권 촉각

신당 창당·재단설립설 등 安행보 시선집중 민주당 변화 요구속 지방선거 큰 변화 예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귀국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통합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안철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달 말 또는 3월 초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 창당설과 '재단설립' 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귀국 뒤 안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야권 구도가 전면 재편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향후 진로를 놓고 시름이 깊은 민주당통합은 더욱 '안철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안 전 후보가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철수 신당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도 올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란 시간표를 맞춰 '안철수 신당'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도 벌써 안철수 '신당 창당'에 관심이 모이면서 '신당 창당'에 뜻을 두

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물표'를 찔지만, 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낳은 민주당의 변화 요구가 높은 인사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3차 구도로 나뉠 경우를 대비해 선거를 준비하는 입자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문제도 맞물려 있지만, 일부 현역 지방의원과 일부 단체장, 입자자들은 안 전 후보의 행보를 지켜보며 신당 창당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철수 전 후보가 귀국 후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안철수 신당' 전 단계로 정책연구소와 같은 재단설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책연구소 설립하면 안 전 후

보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기에 앞서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각종 정책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양성하며 정치세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 설립'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곧바로 신당을 창당하는 모험보다는 정책연구소 또는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중과 직접 만나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치세력을 키운 뒤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신당'을 띄워 출선과 대선 승리로 이어가는 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인 학살’ 추정 사진 공개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고교 역사 교과서에 간토(關東)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조선인 학살 사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기록사진 연구가인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3일 연합뉴스에 공개한 사진 뒷부분에는 '大正十二年九月一日(다이쇼 12년 9월 1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으며 사진에는 부패한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다이쇼는 일본 요시히토(嘉仁) 일왕의 연호로, 다이쇼 12년 9월 1일은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9월 1일이다.

/연합뉴스

‘도지사 물세례’ 도의원 제명 부결

민주 무리한 추진 비난속 지역갈등 진정 국면 기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을 끼얹은 통합진보당 안주용(비례) 의원에 대한 도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전남도의회는 3일 "지난 1일 제2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안 의원의 제명요구안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적의원 62명 중 58명이 투

표에 참가, 찬성 40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제명 가결은 제적의원 3분 2인 4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44명)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안 의원 제명을 결의했지만, 이태표가 생겨 실제 제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도 표를 결집하지 못해 "무리하게 제명 절차를 진행해 벌어진 일"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이로써 전남도의회 물세례 사건으로 계속된 지역 분열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동안 안 의원의 제명에 반대했던 농민회와 진보연대 등 일부 단체들과 안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단체간의 갈등도 봉합

되게 됐다. 안 의원은 "많은 동료의원이 제명 안에 찬성,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 지사도 조속한 시일 안에 도민께 (총동적 투표 발언을)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3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 물표는 총동적'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하려며 물을 끼얹었다.

이에 박준영 지사는 "안 의원의 행동은 저의 발언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고 더 신속한 정치인으로 명에 반대했던 농민회와 진보연대 등 일부 단체들과 안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단체간의 갈등도 봉합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복지확대 박정부, 추경편성론 대두

지방재정 보전 연 10조 등 재원부족 예상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착수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이 해마다 최소 27조원 추가되는 데다 지방정부에 대한 보전도 연간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지난달 주무한 '공약 소요재원 추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재원 규모는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조달 방식으로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81조5000억원, '세입 확대'로 53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진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세입 확대를 위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는 기대만큼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전날 전국 시도지사 집에서 밝힌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도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박 당선인에게 제출한 건의사항이 모두 수용되면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연간 10조원을 넘는다.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선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도 빠듯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하는 재원까지 겹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정책 효과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의결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美, 나로호 발사 두둔 이중기준” 비난

‘초강경 대응’ 재차 위협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미국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두둔하고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적용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재차 위협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호 발사는 비호 두둔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의 위성발사는 무작정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과 차별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했다"며 "미국 의 파렴치한 이중기준과 적대행위는 우리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의 우주 활동을 북한의 행동과 비교할 근거가 없다는 게 우리 견해"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발사 행위도 완전히 금지돼 있지만, 한국은 책임 있게 우주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화 운동 두 여걸의 만남

수치, 이희호 여사 예방

세계적 민주투사로 이름을 떨친 두 여걸이 생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방한 중인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5층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발사 행위도 완전히 금지돼 있지만, 한국은 책임 있게 우주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여사가 "남편이 살아 계셨

다면 상당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은) 여사님 건강과 자유를 갈망하셨어요"라고 말을 건네자 수치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어 너무 유감입니다"고 답했다.

이 여사가 "2007년에는 '버마의 밤'을 열어서 수치 여사님이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공을 준비하곤 했었다"고 회상하자 수치 여사는 "지금까지 주신 친절과 행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교통,광고효과최고!

임대 총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빌딩상가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상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 매매가 : 40억원 (감정가 58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상가 대지 43평 건물 40평 중앙지구구구 대로변 코너 주차면리 매2억6천5백만원(카센타 전시장 커피전문점점점)
② 소촌동 자연녹지 대지 1,820평 4차선 도로 접, 매가 24억5천(공정참고 자동차 정비 등 투자적합)
③ 광산구 운수동 자연녹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정, 창고, 가든 등 적합)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상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건내)